



Critical Language Scholarship Yonsei University Wonju Campus



Bi-weekly newsletter CLS Summer 2014 8 월 7 일, 2014

## Table of Contents **목록**

판문점의 현실	2-3
한국어 마을	4-5
학생 인터뷰	5-6
광고	6
대마도의 중세 역사	7-8
진도	9
책/영화 추천	10-11
강원도 여행 에세이: 강릉	11
CLS 학생하이라이트: Joseph Lee	12-15
이번 주 하이라이트 사진	15
감사하는 편지	16-18



# The JSA Reality Check

By: Chinazo Onwukaike  
Korean Translation by Leowil Villanueva

현실 확인. 이 말은 우리 문화에서 자유롭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죽음의 체험에서부터 안 맞은 옷을 사는 것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현실 확인은 추상적 개념입니다. 현실이 무엇일까요? 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Reality check. It is a word that is used freely in our culture. The implementation of this phrase can range from near-death experiences to having a shirt fit poorly. But this phrase is in itself and abstract concept. What makes reality? Who decides what is real and what is not and why?

저는 판문점 북한 군인의 근처에 있었을 때 이런 질문을 나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분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Walking yards away from North Korean soldiers at the Joint Security Area raised these questions for me. It reminded me of the power of man. Man's sophisticated ability to label and separate.

이 세계가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겨우 10 센티미터의 좁은 콘크리트 블록 하나가 두 나라를 분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데올로기도 두 나라를 갈랐습니다. 이 두 너무 다른 이데올로기는 또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과 인생을 분리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이런 분단을 볼 수 있지만 판문점의 그 작은 콘크리트 블록 하나가 갈라놓은 분단을 이해할 수 있으면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겁니다.



As other parts of the world face turmoil with battle and fighting, it seemed curious that the roughly 4 inch slab of concrete separated more than two nations. It separated two ideologies. Two vastly differing ideologies that have cost thousands of people their lives and relationships. Of course, North and South Korea are not alone in the struggle over ideology, but the ability to see the divide symbolized through a line in the ground is, for lack of a better expression, eye opening.

현실. 우리는 보통 책이나 뉴스로 국제 갈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피해를 직접 봤을 때 믿기 아주 어려웠습니다. 매우 가깝지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쉽게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원래 제가 국제 관계에 관심이 있고 국제적으로 생각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판문점에서 이런 현실을 보고 혼동스러웠습니다.

Reality. We learn about conflict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through textbooks and on the news, but it was incredible to see the effects of the damage humans can make. A person could easily throw a wad of paper over the line and yet the people peering at you from the other side seem like a foreign species. I pride myself for my desire to learn about the world and think internationally, but I found myself conflicted.

이 세계가 왜 이렇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로마의 대경기장처럼 아름다운 곳들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건설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겪는 분쟁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문점을 방문한 덕분에 저는 전부터 들어온 이야기의 진실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Why is this the way of the world? Even the most beautiful structures such as the Pyramids and the Coliseum were built on the backs of others. It is one thing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effects of man's battles with one another. The trip to JSA allowed me to feel the truth the stories I've heard time and time again.

우리가 판문점을 떠날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밀이 많이 있는 북한을 다시 한 번 봤을 때 제가 좀 슬퍼졌습니다. 서울에 가는 길에 저는 우리가 이날 경험한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Leaving JSA, I had a rather odd feeling. I remember feeling tense as I looked across to the country I'd only heard about. But as we took the bus back to Seoul, I could only think that I wish more people could experience what we had.

우리 인간이 서로에게 어떤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본 후에 제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쟁과 긴장 속에 있지 않고 보기만 해도 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Seeing what we as humans can do to each other made me reassess what is important. Looking in the eyes of people from a country seemingly far away reminded me of the gratitude I have for being able to only be a spectator and not an actor in another of history's tales of war and tension.

동시에, 제가 이런 세계의 현실을 지금 더 깊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콘크리트 블록은 역사 책에서 완전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다른 많은 사건들처럼, 인간이 서로를 얼마나 분리, 분단하고 서로를 '타인'을 만드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계들을 이해해야만 이런 긴장을 어떻게 피할 수 있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At the same time, it brought me closer to the reality of the world. One day, that slab of concrete will be a complete story in a history textbook. And like all history before us, it will be an example of the extent man will go to make divisions and create "others". Only once we understand these relationships can we then begin to recognize how to evade these kinds of tensions and work towards a more rewarding and functional peace.





일곱 번째 주 수요일에 우리 CLS 학생들은 “한국어 마을”이라고 하는 활동을 했다. 이 활동을 통해 CLS 프로그램 기간에 배웠던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있었다. 연세 프라자 4 층이 한국의 마을로 바뀌고 여러가지 가게가 생겼다. 미용실, 여행사, 은행, 옷가게 등이 있었다. 우리 버디버디가 그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어로 여러가지의 질문을 하고 대답해야 됐다.

쉽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몰랐던 버디버디하고 이야기도 하고 CLS 친구들하고 연기를 해서 재미있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 한국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CLS 프로그램의 두 달 동안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는 좀 더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

On Wednesday of Week 7, we CLS students participated in an activity called the “Korean Village,” which put our newly acquired Korean speaking skills to the test. The 4<sup>th</sup> floor of Yonsei Plaza was transformed into a Korean town, filled with several stores such as a hair salon, a travel agency, a bank, a clothing store, and more. Our buddy buddies were working hard at all of these stores. At these stores we were required to request products or services in Korean, just as we need to learn how to do in the rest of Korea as well.

Although it wasn't easy, the activity was very valuable for our Korean language learning. Many of us had an opportunity to speak to buddy buddies we had not yet met. Others enjoyed acting out unique and creative scenarios with our fellow CLS students. Lastly and most significantly, this activity helped us to see how much our language ability has grown, through our hard work these two months while on the CLS program.



## Student Interviews

By Cassie Agyemang

Josh: 아침 식사가 짱이었어요. 식사 만들어 주는 아줌마와 아저씨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인터뷰와 한국어 마을도 즐겼어요.

Breakfast was the best. I really liked the food made by the cooks. I also enjoyed the interview activity and the Korean village role-play.

Gabrielle: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수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매일 수업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친구들과 많이 배웠어요. 2 급 학생들과 선생님 사랑하고 보고 싶을 거예요!

My favorite part of the CLS program was the classes. Everyday we learned so much from our great teachers. I'm going to miss our teachers and the students from level 2.



Q: CLS 프로그램 동안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뭐였어요?

Stephanie: 제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다재다능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재능을 서로 공유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든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저번에 새라하고 제가 그룹댄스 연습에 초대 되었는데 그때 2시간 연속으로 연습했는데 정말정말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몸치인지라 그 이후 5일간 앓아 누웠어요.



My favorite part of the program has certainly been meeting so many talented people.

Everyone here has many talents they excel at, or a unique hobby, be it step dancing, singing, instrument playing, and even martial arts. But it's not only the program participants who are talented, the event guests and host family members

have been especially interesting.

One day, Sarah and I were lucky enough to be invited to the guest dance girl group's actual practice. After two hours of straight up dancing we were dying, and my body was sore for a whole 5 days after. However, these girls do such routine and more almost every single day. The amount of dedication they put is inspiring. It does however, blur the line were dedication and talent start and merge. Nevertheless it's an important reminder that to perfect talent dedication can't be left unheeded. I think everyone in the program follows such blend instinctually; so appreciating each other's talents is a so much more meaningful experience.

Single girl seeking man.

However...

"If you are not TOP, these are the characteristics you must have in order to even be considered.

- 1) 재미있지만 신사적인 성격
- 2) 나밖에 사랑은 없다
- 3)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 4) 로맨틱하고 모험적 성격
- 5)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If you don't fulfill these requirements, please don't bother applying.

CLASSIFIED ADS

# 대마도의 중세 역사

마크 버트워일러



국립 박물관에 갔을 때 조선시대의 동국대지도라는 지도를 봤다. 이 지도는 문화재가 아니지만 특징이 있었다. 동남쪽으로 보면, 대마도 (쓰시마)라는 섬을 볼 수 있다. '대마도'를 들은 적이 있지만 일본의 땅인 줄 알았기 때문에 더 깊게 조사하고 싶었다.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영어로 쓴 위키백과의 기사와 한국어로 쓴 기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읽었는데 거의 비슷해서 요약할 것이다.

옛날부터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온 사람들이 대마도에 살았고 6세기부터 일본이 지배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역사상 대마도는 중요한 거점지였다. 예를 들면 삼국시대에는 대마도에서 일본과 한국의 제품을 무역하는 것이 가능하여 무역 중심지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일본의 해적이 (왜구) 대마도를 지배했고 1389년에 고려시대의 박위라는 장군이 해척을 쫓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조선시대의 태종이 왕위에서 물러난 후에 기해동정이라는 침략을 했지만 실패로 끝나며 계해조약을 맺은 후에 무역이 다시 시작되었다.

1510년에 조선시대의 엄격한 무역 정책 때문에 일본 무역상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 사건이 삼포왜란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1592년의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이 대마도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이 실패한 후에 대마도가 다시 무역 중심지가 되었다. 대마도의 현대인 역사가 재미있지만 시간이 없어 다 설명할 수 없다.

일본의 메이지시대까지 대마도가 한국과 일본의 국경처럼 있었으므로 옛날의 지도를 보면 대마도를 볼 수도 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대마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하는데 대마도의 중요한 역할 때문에 몇몇 한국 사람들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When we went to the National Museum, I saw a map from the Joseon dynasty. Although it wasn't a cultural asset, it did catch my eye. If you look in the southeastern corner, you will see an island called Dae-ma (Tsushima). I had heard of Dae-ma Island, but knew it was part of modern-day Japan so I decided to do a bit more research.

It was a bit difficult to find information so I ended up looking at both the Korean and English-language Wikipedia articles to make sure the history wasn't biased. As the articles were almost exactly the same, I will quickly summarize the contents.

Since early on, the population of Dae-ma Island was a mixture of people originating from the Japanese archipelago and Korean peninsula and from the 6<sup>th</sup> century, Japan had control of the island. However, Dae-ma Island had an important historical role for the peoples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for example, Dae-ma Island was used as a center of exchange for Korean and Japanese goods.

During the Goryeo Dynasty, Japanese pirates had control of the territory. In 1389 General Park Wi aimed to rid the islands of pirates but was unsuccessful. After ending his rule of the Joseon Dynasty, King Tae-jung sent out fleets of ships to end the pirate occupation in the so-called Oei Invasion, but he was rebuffed by Japanese samurai and through the Gyehae treaty normalized trade relations.

In 1510, Japanese traders staged an uprising later called the Three-Ports Incident in response to the Joseon Dynasty's strict trade policies. Dae-ma Island was also used as a naval bas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but after Japan's failure the island returned to its role as a trade center.

Japan has had control of Dae-ma Island since the Meiji Dynasty, but because of the island's role as a borderland between Japan and Korea it can be seen in old maps of Korea. The majority of Koreans recognize Dae-ma Island as under Japanese sovereignty, but there are still a few people (and politicians) who claim the island as Korean land.





# 진도

By Brynn Andrews

한국에 있는 섬 중에서  
제주도가 제일 유명하지만 또  
다른 아름답고 복잡하지 않은  
섬도 있다. 진도는 한국에서  
세번째로 큰 섬이고 전라남도  
에 위치고 있다. 서울에서  
진도까지 5 시간 정도 걸린다.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다. 바다를 보고 싶거나  
산에서 등산 하고 싶으면  
전라남도는 진짜 좋은  
목적지이다.



진도는 특히 진돗개로 유명하다. 진돗개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냥개인데 일본의 아키타와 비슷하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제 53 호이고 너무 소중한해서 한국에서 수출이 어렵다. 더 배우고 싶거나 직접 만나고 싶으면 진도에 있는 진돗개 박물관으로 가 봐야 된다.

진도 근처에 여러가지 볼 만한 곳이 있다. 해남에서 땅끝 마을을 방문하면 한반도 제일 남쪽인 곳을 볼 수 있다. 시골보다 도시를 좋아하면 목포는 요즘 빨리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다. 전라도는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해서 어디를 가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Of the islands in Korea, the most famous is Jeju-do, but there is also another beautiful and less crowded island. Jindo is the third largest island in Korea, located in South Jeolla Province. From Seoul, it takes about five hours to get there and you can go either by bus or by car. Whether you want to see the sea or go hiking in the mountains, South Jeolla Province is a great destination.

Jindo is especially famous for Jindo dogs. Jindo dogs are similar to Japanese Akita and are Korea's representative hunting dog. They are also South Korea's national treasure number 53, and so precious that they are difficult to export out of the country. If you would like to learn more or personally meet Jindo dogs, why not take a trip to the Jindo dog museum in Ji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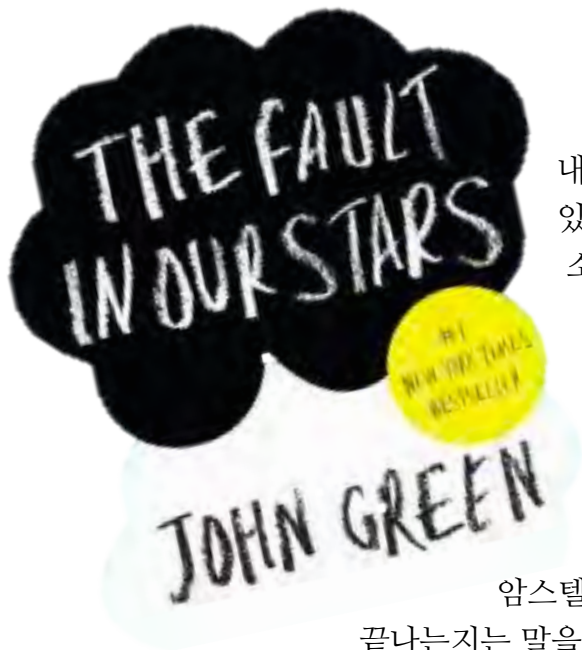
Nearby Jindo there are a lot of other places worth seeing. In Haenam you can visit the Ddangkkeut (end of

the earth) village, which is recognized as the southernmost tip of the Korean peninsula. If you are more interested in the city than the countryside, Mokpo has been developing quite a bit lately. Jeolla Province is famous for having the most delicious food in Korea, so no matter where you go, you will not likely regret it.



# 책/영화 추천

Emily Westland



내가 요즘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라는 책입니다. 원작은 존 그린이라는 작가가 영어로 쓴 소설인데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좋고 잘 써서 적극 권합니다.

소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암에 걸린 학생인 두 명의 주인공들이 암에 걸린 아이들을 위한 협력단체에서 만나서 오랫동안 썸을 타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 두 명이 같은 소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그 소설의 작가를 만나러 암스텔담으로 갑니다. 스포일러 주지 않도록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소설은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인기를 엄청 많이 끌었고, 오랫동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영화로도 만들어져 6월에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내 생일)에 한국에서 개봉될 겁니다! 한국 영화 제목은 책과 달리 “안녕 헤이즐”입니다. 원래 한국에서 개봉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서 아마도 그 때문에 개봉되는 거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꼭  
읽으세요/보세요!

The book that's left the deepest impression on me lately is a book called "The Fault in Our Stars", by John Green. It was originally written in English, but has also been translated into Korean (Korean title: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It's a very good book, and quite well written, so I highly recommend it.

To explain the plot simply, the two main characters, who are both teens with cancer, meet at a support group for kids with cancer.





They hit it off immediately, and because of a mutual interest in a certain book, end up going to Amsterdam together to meet the author. Over the course of the book, they end up falling in love. This sounds very cheesy in English.

This book became enormously popular as soon as it was published in the US, and remained popular for a long time. It's now been adapted into a movie, which was released in the US in June. It's also going to be released in Korea on August 13th (my birthday)! It was originally not going to be released in Korea, but possibly due to the popularity of the American release, it's now going to be. The title of the Korean movie version is "안녕 헤이즐", different from that of the book.

If you have time, you should definitely read/watch it!

## 강원도 여행 에세이: 강릉

Leowil Villanueva 범력웨



올여름 한국에서 맞는 두번째 주말에 제 호스트 가족과 강릉에 잘 놀러 갔다 왔습니다. 원주에서 두 세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차에서 잘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통일 박물관에 《統一博物館》 갔습니다. 박물관이 작은 산 위에 있는 덕분에 저기서 망원경으로 북한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안을 관람했을 때 우리는 북한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 본 후에는 우리가 바닷가 옆에 있는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한국의 첫번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 집 밖에는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주에 돌아와서 시청 옆에 있는 아트홀에서 한국 전통 연극을 봤습니다. 연극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 때는 한국어가 더 부족해서 잘 이해 못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날 우리는 같이 시간을 잘 보냈고, 내 기억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 Student Highlight: Joseph Lee

By Angela Gizzi

지난 8 주 동안, 조셉은 CLS Program 의 모든 여자들이 데이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CLS 의 여자들은 항상 조셉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Throughout these last 8 weeks, Joseph has acquired the reputation of the most sought-after bachelor in the CLS Program. The CLS girls always seem to be fighting over him. In order to settle this conflict once and for all, let's play...

# CLS 학생 하일라이트

## 싱글 남자

# The BACHELOR

조셉과 함께  
with Joseph Lee!

조셉에 대하여  
About Joseph:

조셉이 꿈꾸는 데이트는 평범한 데이트입니다. 그것은 단지 유쾌한 여자와 함께 아름다운 공간을 산책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조셉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조셉은 행복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여자들에게 놀랍겠지만, 이 데이트는 조셉의 첫 데이트입니다. 누가 이 첫 데이트의 영광을 차지할까요? 읽으면서 알아보아요!

Joseph's dream date isn't overcomplicated. Just a nice walk with that "lucky someone" in a scenic area would do. Conversation wouldn't even be required. Just the presence of this girl would be enough to make Joseph happy. This may come as a surprise to all you girls out there, but this would actually be Joseph's first date ever! Who should the honor of this first date go to? Read on to find out!



그 관계가 다음 단계로 발전되면, 조셉은 한 번 뿐만 아니라 두 번의 결혼을 원할 거예요. 우와, 당신의 인생에 최고의 날이 두 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조셉은 교회에서 한국 전통 혼례를 하고 싶어해요. (한복 입은 여성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조셉은 재미있는 미국식 결혼도 하고 싶어해요. 이 결혼은 아마 조셉의 고향에서 멀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축하할거예요.

Should this relationship escalate to the next level, Joseph would want to get married with not only one wedding, but TWO weddings! Wow, imagine getting to have the best day of your life twice! Joseph wants to have a traditional Korean wedding in a church (start looking for hanboks, ladies!) and also a fun, American-style wedding. This wedding would take place someplace far, far away from Joseph's hometown and would be a weeklong celebration!

Be Mine ManCandy  
4EVA Joseph!  
Love Boat  
So Dreamy <3  
Single! Wow!



조셉에 대한 다른 재미있는 사실들... 그의 가장 좋아하는 식사는 반찬이 많이 나오는 한식이에요! 고기를 좋아하고 해산물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라면은 조셉의 마음에 속 들어요. 조셉은 액션 영화를 즐겨보고 슈퍼영웅의 엄청난 팬이에요. 그는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영화는 다 좋아해요.

Some other fun facts about Joseph...

His favorite meal would include Korean food with lots of side dishes! Meat never hurts, seafood is great, and ramyun is very dear to Joseph's heart.

Joseph enjoys action movies and is a huge superhero fan. He likes any movie that stretches the imagination!

조셉이 여자친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친절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재미있는 여자라면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침착하고 차분해야 해요. 이것들은 조금 높은 기준일 수 있지만, 저는 CLS 싱글 여자들이 모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The first thing Joseph looks for in a significant other is a kind personality and the ability to accept the flaws of others. A sense of humor is also a plus. Lastly, she should be able to be poised in *all* situations. Those are some pretty high standards, but I think our CLS bachelorettes can live up to them!

# 참가자들: *The Contestants*

여자 1 번. 브린 앤드류!

## *Bachelorette #1: Brynn Andrews!*

꿈꾸는 데이트: 놀랍게도, 브린은 함께하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라면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꿈꾸는 결혼: 크고, 비싸고, 재미있고, 거창한 결혼을 원해요.

좋아하는 음식: 치즈와 와인.

좋아하는 영화 장르: 무서운 영화.

이상형: 신뢰감 있고 정직한 사람.

Dream Date: A surprise! Brynn isn't picky as long as the company is enjoyable.

Dream Wedding: A huge, lavish, insane, blowout wedding!

Favorite Food: Cheese and wine.

Favorite Type of Movie: Horror movies. For 진짜.

Dream Significant Other: Trustworthy and honest.



여자 2 번. 캐시!

## *Bachelorette #2: Cassie Agyemang!*

꿈꾸는 데이트: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평범한 데이트. 그 후에는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해요.

꿈꾸는 결혼: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전통적인 결혼.

좋아하는 음식: 면이나 감자가 있는 어떤 요리든 좋아요.

좋아하는 영화 장르: 캐시가 좋아하는 영화는 Think Like a Man 이예요.

이상형: 유머감각 있고, 자신감 있는 남자예요. 또 그는 가정적인 남자여야 해요. 왜냐하면 옛말에 “남자가 그의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을 대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했거든요.

Dream Date: Something simple like dinner and a movie. After that, they would talk while taking a walk.

Dream Wedding: A traditional wedding in a church with family and friends.

Favorite Food: Any food with noodles or potatoes!

Favorite Type of Movie: Cassie's favorite movie is Think Like a Man

Dream Significant Other: A guy with a sense of humor and confidence. He also has to value family because, like they say, “The way a man treats his mother is how he will treat you!”



여자 3 번. 캐시 김!

## *Bachelorette #3: Kathy Kim!*

꿈꾸는 데이트: 즐겁고 흥미로운 데이트!

꿈꾸는 결혼: 한국식 전통혼례와 미국식 결혼이 섞인 결혼.

좋아하는 음식: 아시아 음식! 특히 한국음식!

좋아하는 영화 장르: 공포 영화만 아니라면 따지지 않아요.

이상형: 매너있고 도전적인 사람. 착하지만 지루하지는 않은 사람.

Dream Date: Something fun and exciting!

Dream Wedding: A mix between traditional Korean and American.

Favorite Food: Asian Food! Especially Korean!

Favorite Type of Movie: Kathy isn't picky, as long as it's not horror.

Dream Significant Other: A guy who is nice but adventurous. Sweet and salty!





우리의 신뢰도 높고 정확한 매치메이킹  
결과에 따르면, 조셉의 가장 완벽한 짝은

.....  
According to our 100% accurate and  
accredited match-making calculations here  
at "The Bachelor: CLS Edition", Joseph's  
perfect match is...

**캐시!!!**  
**CASSIE!!!**

이번 주 하이라이트 사진

Taken by Anna Yamamuro



CLS girls with an ROK  
soldier at JSA.

감사하는 편지  
범력웨



호스트 가족들과  
버디버디들과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국제교육원의 선생님들과  
언어 선생님들과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의 변 선생님과  
Resident Director 윤 선생님께:

Dear Host Families, Buddy-Buddies, Yonsei University International Education Office Staff, Korean Instructors, Pyun Teacher and Resident Director Yoon Teacher,

시간이 믿기 어렵게 너무 빠르게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이 특별한 장학금을 받았을 때 당연히 많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올해 여름 방학 동안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늘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달 동안 행복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Time has flown by so quickly and I truly can't believe it! All of us were very grateful when we received this prestigious scholarship. At the time we were unaware of how much our Korean language skills and cultural understanding would improve this summer, but after all the happy and fun experiences we have had together these two months we are even more thankful!

먼저는 우리 친절한 한국 호스트 가족들께 우리를 집안에 초대하고 진짜 식구처럼 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First we want to thank our kind Korean host families for opening up their homes to us and treating us like real family!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버디버디들이 우리와 시간을 많이 지냈고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여기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The buddy-buddies of Yonsei University Wonju Campus spent a lot of time with us and became our good friends. We really enjoyed our time here because of you!





국제교육원 선생님들이 우리 문화 활동과  
다른 걸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우리 성공도 없었을  
겁니다!

Many thanks to the teachers and staff of  
Yonsei University Wonju Campus  
International Education Institute for  
their hard work organizing our cultural  
activities among other things. Without your efforts  
our successes here would have been impossible!

우리 한국어 선생님들이 올해 여름 동안 계속 하루 종일 재미있게  
가르치시고 밤에 늦게 주무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수업이 다  
끝났으니까 꼭 쉬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Our Korean language instructors worked very hard this summer enthusiastically teaching all day long and sleeping late preparing our lessons! Now that our classes are coming to an end, you all deserve to take a long break! Thank you!

변 선생님께서는 우리 일급 학생들을 잘 가르치시고 우리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Pyun Teacher for teaching our friends in Level 1 and managing our program!

마지막으로 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의 원주 생활은 힘들었을 겁니다. 이 두 달 동안 모든 학생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ast, but not least, if not for our Resident Director Yoon Teacher, our life in Wonju would have  
been more difficult! Thank you so much for being like our mom for these two months!

시간이 지날 수록 한국어 공부하기와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는데도 힘들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올해 여름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Despite the difficulty of adapting to life in Korea and intensively studying Korean, thanks to  
everyone's efforts we had a truly great summer!

We will never forget it!

우리 앞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And we look forward to meeting again!

벌써 또 보고 싶네요!

Missing you already,

화이팅!

Fighting!

- CLS 2014 년 한국어 장학생들 올림
- From the Students of the CLS 2014 Wonju, Korea

모든 CLS 학생들에게:

To all my fellow CLS students:

여러분이 제 마음에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함께 다양하고 재미있고 이상하고 어려운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지낸 시간은 영원히 제 기억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이 프로그램은 아마도 지루해서 죽었을 겁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I don't really feel like translating this to English because it is a lot more cheesy. So just read the Korean. The gist of it is, you are all very special people and we had a great time together! I'm glad to have met you and will think of you fondly!

사랑해!

Sincerely,

범력위

Leowil Villanueva

